

## [ 경제 ]



우리투자증권 기신상 광주지점장은 LG화학과 기름전자를 추천으로 꼽았다. 기지점장은 LG화학을 추천한 이유로 화학업종의 실적 터너라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LG석유화학과의 합병 가능성이 신사업인 정보전자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기름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라디오의 디지털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이 업체가 국내 유일의 디지털라디오 부품 제조업체라는 점을 들었다.

## LG석유화학과 합병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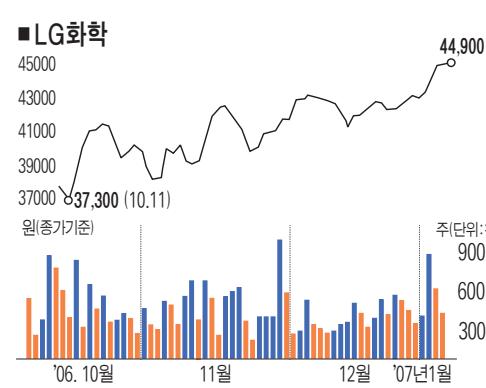
## ■ LG화학

국내 최대의 화학기업이다. PVC 등 석유화학 제품과 건축자재 등 산업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 등 정보전자소재 제품을 생산한다.

사업부문별 매출 구성을 보면 유화부문 55%, 산업체 부문 28.3%, 정보전자 부문 20.7%로 다각화 돼 있다.

지난해 주력인 유화부문이 유가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는데도 중동과 중국의 대규모 증산으로 제품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고전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유화부문의 매출비중은 줄이는 대신 PDP용 부품 등 미래형 정보전자 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 2차전지 사업부문에서도 소니의 노트북 PC 리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따라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첫째 올해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와 연관될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올해 중동 등 대규모 신규설비가 가동에



들어가 석유화학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재시했다.

다만 사업 다각화로 정보전자소재와 산업체 부문의 실적개선이 유화부문의 고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과 LG석유화학과의 합병 가능성에 주가 상승 견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2002년 이후 기준 가격대인 4만 5천원의 지지부여와 주요 매출대(3만8천~4만7천원) 돌파가 중요하다.

## 디지털라디오 시대 최대 수혜

## ■ 기름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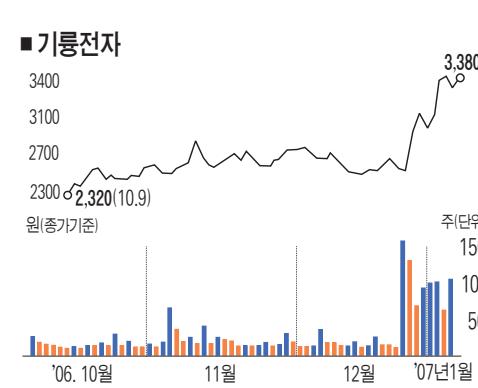
방송 수신기 및 음향장치 제조 전문업체. 주력 제품은 디지털 위성 라디오이며 이밖에 디지털 위성방송, GPS(위성항법장치),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네비게이션 등을 생산한다.

디지털 위성 라디오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력과 환율변동이 우려되지만 'SP-4'라는 신 모델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 DMB와 신규 사업인 고음질(HD) 라디오의 성장세로 외형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의 성장동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디지털 라디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방안 검토를 위해 디지털라디오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주가도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다.

기름자는 디지털라디오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 수용이 원활하고 풍부한 음량의 고품질 라디오 방송이 가능



한 디지털라디오 시대가 열리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라디오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신규 제품인 일본의 DMB 수신기나 HD라디오 시장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신 성장동력이 가시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생명보험사 상장  
하반기 이뤄질듯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생보사 상장안을 확정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과 금융감독원의 승인, 생보사의 상장주간사 선정 및 실사, 공모가 산정 등 공모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7~8월에 첫 상장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9년 교보생명의 자산 재평가부터 시작된 생보사 상장문제는 18년 만에 매풀짓게 됐다.

자문위는 이날 최종안에서 국내 생보사는 법률상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식회사로 운영돼 있으며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권리·의무만 갖고 있어 상장차익을 계약자에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상장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과거에 자산을 재평가해 쌓아놓은 내부 유보액을 계약자 뒷으로 규정하고 현재 자본계정에 있는 이 유보액을 부채계정으로 옮겨 향후 계약자의 배당금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 유보액은 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이다.

현재 내부 유보율과 경영실적 등 계량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오는 3월 결산 때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동부생명·신한생명으로 이중 교보생명과 동부생명이 적극적인 상장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최종안에 대해 그 동안 생보사가 상호회사이며,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계약자에게 주식이나 현금 등 상장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빅3' 생보사의 주당가치는 삼성생명 70만원, 교보생명 40만원선, 대한생명 8천원선 등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지역 등 일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검토

## 당정, 11일께 결론

정부와 여당이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가점제를 예정보다 빠른 올해 9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원가 인하를 위해 체관입찰제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께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전·월세 대책,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

## 자영업자 DTI 예외 적용

〈총부채상환비율〉

## 봉급자들 반발 확산

## “탈세자들에 면죄부”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자영업자 등 소득입증이 어려운 일부 계층을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예외로 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 ‘탈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은 자

정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정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부동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인하를 위해 체관입찰제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설계 보증금의 50% 까지 전세 보증금 보호 한도 확대와 함께 전·월세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한 뒤 분양가 상한제 등의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

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정은 또 오는 9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청약과 열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현재의 추첨식 청약과 달리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가구주 나이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9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설계 보증금의 50%

까지 전세 보증금 보호 한도 확대와 함께 전·월세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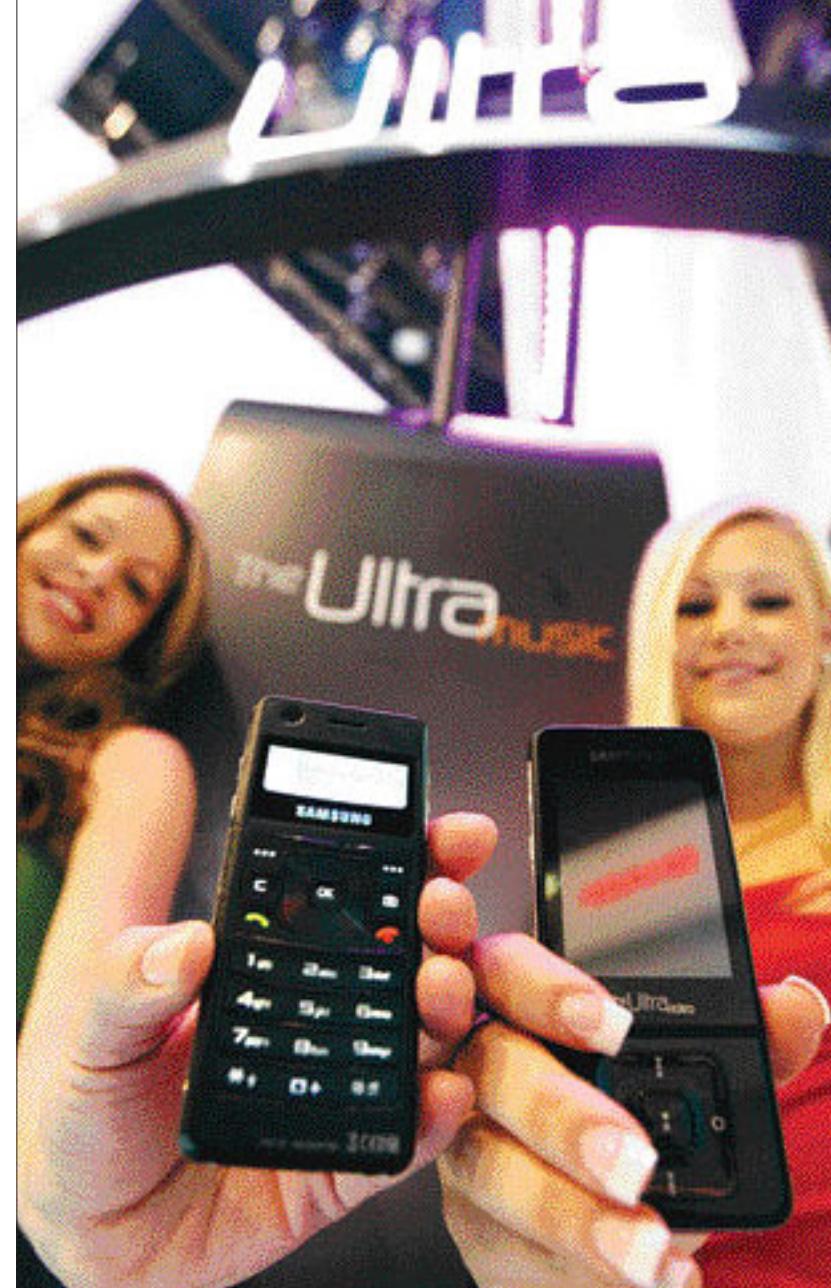
시중은행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여신심사선진화사업 테스크포스(TF) 회의’가 자영업자들에 대해 DTI 적용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테스크포스가 자영업자들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소득입증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능력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론은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소득규모를 축소해 신고한 것인데이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른없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은 ‘탈세자들에게 예외적용까지 혜택을 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올트라 에디션 스페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2007’ 전시장에서 삼성전자 흥보 도우미들이 올트라 에디션 스페셜을 선보이고 있다. CES 2007은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 삼성전자, 중국에서

## TV 4개 부문 최고상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전자정보산업 발전연구원과 중국전자보가 개최한 ‘2007 중국 소비가전 연례회의’에서 TV 4개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수상한 부문은 ‘2006 박막형 TV 창조 디자인상’, ‘2007 박막형 TV 가장 구입할 만한 제품’, ‘2006 박막형 TV 산업 추진상’, ‘2007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 등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선도적인 박막형 TV 생산 기업으로 막강한 기술과 시장축적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데 기여한 데 대해 인정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수상한 부문은 ‘2006 박막형 TV 창조 디자인상’, ‘2007 박막형 TV 가장 구입할 만한 제품’, ‘2006 박막형 TV 산업 추진상’, ‘2007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 등이다.

7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를 통해 각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심어줬던 ‘베스트 & 워스트’ 지인자의 사례를 모아봤다.

오늘은 인사담당자는 제품을 면밀히 분석, 과자포장지까지 붙인 제품보고서 만들어 온 ‘제품 분석형’ 지원자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꼽았다.

포스데이터의 한 지원자는 집단면접 2시간 전에 면접장에 도착, 같은 조원들의 사기를 북돋운 뒤 자발적으로 사회를 맡아 밝은 기회와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고 회의록까지 작성하는 등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 강한 인상을 남겼다.

네오위즈에 지원했던 한 20대 남성은 불합격된 뒤 2주간 회사와 담당자 개인전화로 끊임없이 연락해 ‘다시 기회를 달라’고 즐그대며 흡사 ‘스토커’ 같은 모습을 보여 인사담당자를 두 번 실망시켰다. 도전적인 멋진 리더의 모습으로 좋은 첫인상을 줬다는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직접 불합격 이유를 설명들은 뒤에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는 등 부족한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인사담당자들이 ‘별렀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거절을 허락해버렸다.

인사담당자들은 이 밖에 너무 뛰는 의상을 입고 온 지원자나 면접비만 받고 대기도중 도망간 ‘얌체형’, 최종 합격후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예의 상실형’ 지원자를 ‘워스트’ 사례로 뽑았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디엔씨컴퍼니	영업 관리직(내근 사무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0	062-671-8721
사이트	매장/판매 관리 슈퍼바이저 모집	고졸/경력10년	회사내규	01/10	062-385-3316
양우건설(주)	경력/주택 분양 영업 사원 모집	대졸/경력3년	2400~2600	01/14	02-2679-5200
대명하이텍(주)	자동체어 관리업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2-953-6444
주일양택배	일양택배 배송/청고관리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2-3277-9409
삼성카메라동부총판(주)	광주 삼무미드트 삼성카메라 파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7	02-469-9832
디엠광고기획	영업 및 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9	062-268-2409
한진실업(주)	조립line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1/19	062-953-4702
국제컴퓨터학원	oa/캡슐/워드 강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1/19	062-266-6617
피니아엔지(주)	기술/시스템/전자제어/계측기 영업 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200~2400</		